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연준, 11월과 12월에 금리 0.25%씩 내린다
- CNBC: 미 인플레이 둔화... 중산층은 여전히 재정 부담
- Bloomberg: 월가 CEO들, 미국 경제 낙관... 유럽에 대해 우려

[미국 금융]

- WSJ: 연방 적자 위협, 채권 금리 더 올린다
- WSJ: 트럼프 집권 시 달러 오를 수 있다

[물류]

- WSJ: 항만 노사 추가 협상,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렸다

[주택]

- Bloomberg: 주택 가격 상승 둔화... 고금리로 구매 제한

[오일]

- Bloomberg: 유가, 공급 리스크로 6% 급락 후 회복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미 항공사들, 항공편 취소하면 자동 환불해 줘야
- Bloomberg: 맥도날드, 해외 시장 약세로 매출 타격
- WSJ: 경쟁사들이 따라 하려는 스페이스X의 강점
- Bloomberg: 아디다스, 광범위한 매출 증가로 입지 강화
- CNNBusiness: 폭스바겐 "독일 공장 최소 3곳 폐쇄하고 수천 개 일자리 줄인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Fed seen on track for quarter-point rate cuts in Nov, Dec 연준, 11월과 12월에 금리 0.25%씩 내린다

- 연방 노동부가 지난달 일자리 공고가 2021년 1월 이래 가장 낮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화요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0.25%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달 초에 보고된 9월 일자리 성장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일자리 보고서를 근거로 연준이 향후 2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ZipRecruiter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Julie Pollak."지난달 하락한 일자리 공고는 연준에게 최근의 장미빛 일자리 데이터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경고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Reuters 기사

CNBC: Inflation is down — but the middle class is still feeling financial pressure. Here's why**미 인플레이션 둔화... 중산층은 여전히 재정 부담**

- National True Cost of Living Coalition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3분의 2(65%)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향후 삶에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중산층 가구의 3분의 2는 자신들에게 필수적이지 않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6월에 이루어졌다.
- 중산층의 정의는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5만3천7백40불에서 16만1천2백20불 사이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9월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율 2.4%로 나타났다.

CNBC 기사

Bloomberg: Wall Street CEOs Bullish on US Economy, Concerned About Europe**월가 CEO들, 미국 경제 낙관... 유럽에 대해 우려**

-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다보스 형식의 연례 투자 관련 모임에서 미 금융업계 책임자들은 대부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유럽의 지체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 이곳에 참석한 이들은 시티 그룹, 블랙록, 골드만 삭스 등 월가 업계의 CEO들이다. 골드만 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미국 경제는 매우 좋고 매우 탄력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 IMF는 지난주에 미 경제는 올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유럽은 겨우 0.8%, 영국은 1.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부분의 관련 책임자들은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IMF Growth Projections

	Forecast for 2024 GDP	Change vs prior forecast	Forecast for 2025 GDP	Change vs prior forecast
World	3.2%	0.0PP	3.2%	-0.1PP
US	2.8	+0.2	2.2	+0.3
Euro area	0.8	-0.1	1.2	-0.3
Germany	0.0	-0.2	0.8	-0.5
France	1.1	+0.2	1.1	-0.2
Italy	0.7	0.0	0.8	-0.1
UK	1.1	+0.4	1.5	0.0
Japan	0.3	-0.4	1.1	+0.1
China	4.8	-0.2	4.5	0.0
India	7.0	0.0	6.5	0.0
Russia	3.6	+0.4	1.3	-0.2
Brazil	3.0	+0.9	2.2	-0.2
Mexico	1.5	-0.7	1.3	-0.3
South Africa	1.1	+0.2	1.5	+0.3
Saudi Arabia	1.5	-0.2	4.6	-0.1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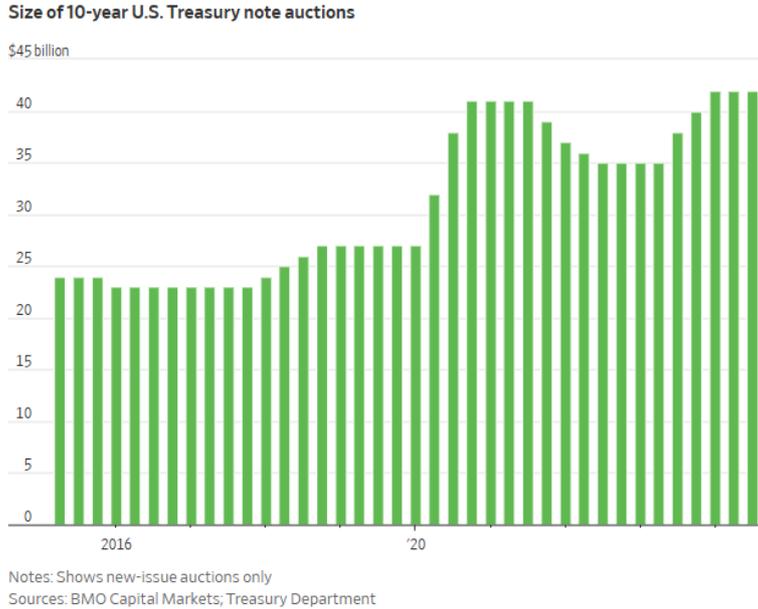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Deficit Threat Drives Bond Yields Higher

연방 적자 위험, 채권 금리 더 올린다

- 투자자들은 어려운 연방 재정 상황이 미 대선 이후에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어나는 연방 적자에 대한 전망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상승한다. 연방정부의 2년물 690억 불 경매가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지 못했고, 이번 주 월요일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이는 미국의 강한 경제 지표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베팅 가능성을 줄인 이후, 1주일간 계속된 채권 시장의 최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 경매 규모는 곧바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재무부가 이번 주 수요일 분기별 차입 방안을 발표할 때, 재무부는 향후 3개월 동안 기록적인 국채 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Dollar Likely to Rise if Trump Becomes President
트럼프 집권 시 달러 오를 수 있다

- 트럼프가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초기에는 달러와 미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고 MUFG Bank는 전망했다.
- 이 은행은 트럼프가 지난주에 블룸버그 가진 인터뷰를 봤을 때 트럼프가 첫 임기 때보다 인플레이션 성격의 관세를 보다 빨리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이 은행은 달러가 지난 10월에 거의 4% 상승한 점이 이미 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달러의 상승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반면에 유로는 \$1.0500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여전히 1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유로는 0.1% 떨어진 \$1.0807이다.

WSJ 기사

[물류]

WSJ: Port Labor Talks May Hinge on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항만 노사 추가 협상,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렸다

- 지난 10월, 3일 만에 끝난 미 동부 및 걸프만 항만 파업에 대해 노사 추가 협상이 다음 달 열린다.
- 이미 향후 6년간 임금 62% 상승 등 임금 타결이 이루어졌으나 항만 자동화 문제 등 생산성 문제에 대해선 노사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 고용주 측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노동 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다음 달 협상에서 생산성 개선과 관련된 협상을 할 예정이다.
- 사측은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임금 상승이 합의된 상태이니 자동화 관련 해 노조 측이 양보토록 정부가 도와주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노조 측의 입장을 트럼프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계약은 내년 1월 15일에 만료된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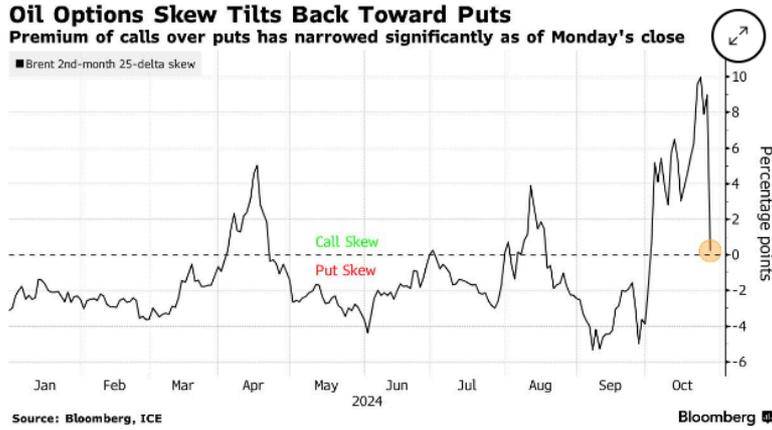
[주택]**Bloomberg: Home-Price Gains in US Ease With High Rates Deterring Buyers****주택 가격 상승 둔화... 고금리로 구매 제한**

- 8월에 미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높은 금리로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S&P CoreLogic Case-Shiller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국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2% 상승했다. 7월 연상승률 4.8%보다는 낮았다.
- 8월 가격지수는 30년 모기지율이 6.8%에 달했던 지난 6월 이래 3개월간의 추이를 분석한 지수다. 6월 이후 금리는 둔화되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 높은 모기지율이 주택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 10개월간 가장 낮았었고, 9월에는 더 떨어졌다고 전국 부동산협회는 밝혔다.

Bloomberg 기사

[오일]**Bloomberg: Oil Recovers After 6% Plunge as Focus Moves Back to Supply****유가, 공급 리스크로 6% 급락 후 회복**

- 월요일,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유가가 하락했다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브렌트유는 6.1% 급락 후 배럴당 72달러 이상으로 회복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6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 이스라엘이 주말에 이란을 보복 공격할 당시 석유 인프라는 피한 점, 인질 석방을 대가로 가자지구 단기 휴전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말한 점 때문에 시장은 전쟁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시 중국의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이 주목받고 있다.
- 시장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또한 OPEC+는 12월부터 자발적 감산을 끝낼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enss: US airlines are required to refund you for a canceled flight automatically
미 항공사들, 항공편 취소하면 자동 환불해 줘야

- 이제 미국 항공사는 승객이 환불을 요청하지 않아도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 미국 교통부는 항공사가 바우처(voucher,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이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증서나 쿠폰)가 아닌 환불을 제공하도록 하는 연방 규정이 월요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 교통부는 승객이 대체 항공편 재예약 또는 대체 보상을 수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 20일 이내 항공사가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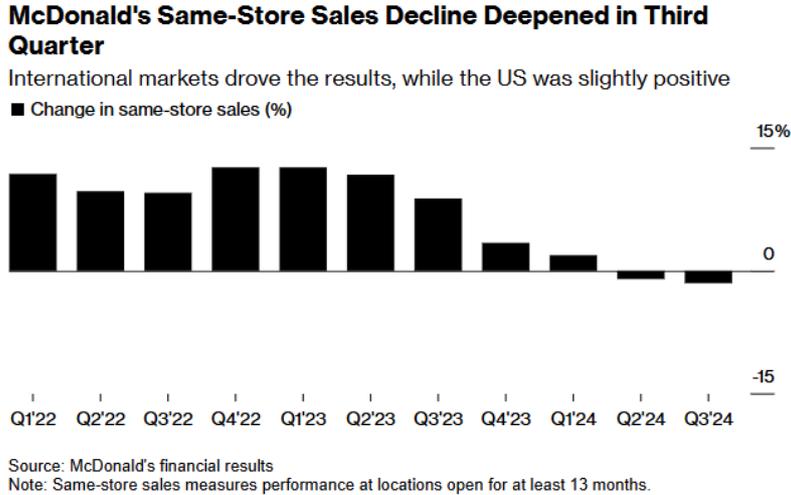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McDonald's Sales Hit by Weakness in International Markets
맥도날드, 해외 시장 약세로 매출 타격

- 해외 시장 부진으로 맥도날드 3분기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개점한 지 13개월 이상 된 해외 지점들 매출은 1.5% 감소했다. 미국 지점 매출은 0.3% 성장했다.
- 맥도날드는 5달러의 저렴한 식사 메뉴가 브랜드 인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2025년 초 메뉴의 비용 부담이 적은 '새로운 가치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지난주 발생한 이콜라이 대장균 이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거래를 추적하는 블룸버그 Second Measure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전역 맥도날드 매출이 감소했다.

Placer.ai의 이동통신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이 감염된 콜로라도에서는 매출이 최대 33% 감소했다.

- 맥도날드는 10월 27일 문제 원인인 쇠고기 패티와 양파를 버리고 쿼터파운드 버거를 재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The SpaceX Advantage That Rivals Are Trying to Emulate
경쟁사들이 따라 하려는 스페이스X의 강점

- 10월 중순 스페이스X는 Starship 우주선에 사용된 높이 232피트의 슈퍼 헤비 부스터가 발사대 두 팔 사이로 회수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 스페이스X가 1단 발사 추진체를 그대로 회수하는 것은 매우 큰 성과다. 컨설팅사 베인은 로켓 엔진을 비롯한 하드웨어 재사용은 지구 저궤도 진입에 드는 비용을 50~80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스페이스X는 재사용할 수 있는 Falcon 부스터를 이용해 회사의 위성 네트워크인 Starlink 비행 횟수를 늘리고 있다. 스페이스X 경영진은 이르면 내년부터 자체 스타링크 인터넷 위성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스페이스X의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로켓 엔진을 재사용하면 더 많이 비행할 수 있다. 더 많이 비행하면 여러 임무에 비용을 분산할 수 있고, 수익 마진도 더 많이 남는다. 로켓회사 Orbital ATK의 전 CEO David Thompson은 Falcon 제품군이 우주 비행의 경제성을 크게 변화시켰고, 경쟁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 경쟁사들도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eff Bezos의 Blue Origin이 개발 중인 궤도 로켓 New Glenn은 1단 발사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로켓은 다음 달 첫 발사를 앞두고 있다.
- 보잉과 Lockheed Martin 소유의 로켓 운영사 ULA도 새로운 로켓 Vulcan Centaur의 1단 발사 추진체 2개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Adidas Comeback Gains Ground With Widespread Rise in Sales

아디다스, 광범위한 매출 증가로 입지 강화

- 아디다스는 3분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북미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했다고 밝혔다. 영업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4억9백만 유로에서 5억9천8백만 유로(6억4천6백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Bjorn Gulden CEO의 재성장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Gulden은 2023년 1월 아디다스를 인수했다. Gulden은 Yeezy 브랜드에 대한 회사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신발과 의류 디자인에 집중했으며, 운영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바꿨다.
- 인기 있는 복고풍 제품인 Samba와 Gazelle 신발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70년대 스타일 러닝화 SL72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아디다스는 라이벌 푸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업계 선두인 나이키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Historic moment for Volkswagen: Automaker plans to close 'at least' 3 German plants and cut thousands of jobs

폭스바겐 “독일 공장 최소 3곳 폐쇄하고 수천 개 일자리 줄인다”

- 월요일,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장도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의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국내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 및 사업 운영 구조조정 계획을 두고 몇 주 동안 노조와 협상 중이다. 노조 측은 회사 측과의 합의에 따라 12월 1일부터 파업이 가능하다. 독일 노조 IG Metall은 수만 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폭스바겐 노동위원회 위원장 Daniela Cavallo는 “모든 독일 공장 근로자의 급여를 10% 삭감할 계획이다. 예외는 없다. 폭스바겐 일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웃소싱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이것을 단순한 협상 전략으로 생각하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 폭스바겐은 중국 내 경쟁 심화 및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 둔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경영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유럽에서 판매량이 연간 50만 대 줄어들었으며, 이는 약 공장 2개와 맞먹는 수치라고 밝혔다.
- 인사 담당 이사회 멤버 Gnnar Kilian은 “상황이 심각하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미래에 필요한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뉴욕증권거래소, 일간 거래시간 16→22시간 연장 추진
美당국 승인시 한국서도 낮시간대 미국 주식 거래 쉬워져

나스닥과 더불어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가 주식 전자 거래플랫폼(NYSE Arca)의 일간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시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일간 거래시간은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6시간 늘어나게 된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까지를 거래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